

1. 우주기술 전문연수 소감

우주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우주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주산업은 특별한 이론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상에서는 상식이었던 것이 우주에서는 상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우주에서 고장 없이 수년간 운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맨땅에 헤딩하듯, 어깨너머로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처음으로 우주기술 전문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우주기술 예비 종사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강사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서브시스템 레벨에서, 그리고 부품 레벨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원 박사님들과 서브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책임/선임 연구원분들이 강사로 참여한 것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물론 부품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기업비밀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 이 부분은 취업 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개발 중인 위성 부품을 볼 수 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성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바로 다음의 발사체 과정에 적용될 정도로 피드백이 빨랐고, 다른 연수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연수생 중심으로 배려하는 분위기 등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임에도 만족스러운 진행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연수과정부터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우주기술 전문연수가 취업에 도움이 된 점

연수 프로그램은 공통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공통과정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간 내용들이었지만, 전문과정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회사를 다니던 경력자였고 구조설계를 담당했지만 원래 전공과 달라서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과정에서 배운 기구설계, 기계접속설계는 이전에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도면해석, 치구설계 등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금 재직 중인 회사는 대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아 존재도 모르고 있었지만, 협회 회원사와 연계되어 있는 연수 프로그램 덕분에 산업체 현장방문 당시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규모와 개발 분야를 알 수 있었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